

경기도,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 '생태정보 알림 서비스' 구축

라이프일반 수정 2020-10-22 07:58:52 입력 2020-10-22 07:58:08



평화누리길을 걷는 탐방객들(자료사진)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를 통해 주변 생태환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 어플리케이션은 매년 40만여 명이 평화누리길을 찾고 있어 도가 탐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력해 개발했다.

평화누리길 12개 구간(연천 3개, 파주 4개, 김포 3개, 고양 2개) 총 189km에 대한 지도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폰의 위치 확인 시스템(GPS)을 바탕으로 현재 어디를 걷고 있는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기능도 갖췄다.

새로 추가된 이번 '생태정보 알림 서비스'는 위치 확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탐방객들이 평화누리길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개 코스 당 10종 내외의 주요 동·식물을 어플 내 지도에 표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생물의 명칭과 분류, 관찰가능 시기 및 장소, 생장 등 상세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

또 탐방객이 자신이 위치한 곳 50m 이내에 해당 동·식물의 서식지가 있을 때 이를 알려주는 '알림기능'도 있다. 이번 기능은 경기도가 지난 2017~2019년 3년간 실시한 'DMZ일원 자연환경 생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평화누리길 일원의 실제 최신 생태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도는 'DMZ일원 자연환경 생태조사'를 통해 평화누리길 일원에 멸종위기종인 가시오갈피나무, 천연기

넙물인 검은머리물떼새 등을 포함한 1120종의 식물과 152종의 조류, 10종의 포유류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올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태자원 종합보고서와 시군별 생태자원 지도를 제작해 평화누리길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하반기 중에는 생태자원 영상을 제작해 주요 행사나 환경 교육 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올댓스탬프'를 내려 받은 후,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를 선택하면 된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